

◇난치성 식도협착에서의 인두-대장 문합술의 결과

박충규, 심 영목, 김 진국, 김 관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부식제에 의한 난치성 양성 식도협착에서는 식도대용물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을 실시한다. 수술자에 따라 식도대용물로 위나 대장을 선호하게되나, 저자당은 인두에서 위의 일부 또는 출구까지 심하게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증례들을 접하게 되어, 대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을 인두부터 공장 또는 위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방법 : 저자들은 1995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부식성 협착이 인두에서부터 위의 일부 또는 출구까지 심하게 진행된 6례의 환자에서 인두에 대용식도로 좌측대장을 문합하는 식도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4례, 여자 2례였고, 연령은 22세에서 64세로 평균 38.7세였다. 부식제의 음용후 식도 재건술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서 2년 4개월까지 였다. 식도 재건술시 이용한 대용식도는 6례에서 모두 좌측 대장을 사용하였고, 5례에서는 흉골하경로로, 1례에서는 식도열공경로로 위치시켰다. 경부 인두-대장 문합에서, 3례에서는 갑상연골을 부분절제하여 좌측 양배꼽동에 단단문합술을 하였고, 2례에서는 하인두수축근의 전외측에 단단문합술을 하였다. 나머지 1례에서는 식도를 절제하지 않고, 단측문합술을 하였다.

결과 :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은 경부 하인두-대장 문합부위의 협착이 2례있어서, 1례에서는 식도확장과 유리공장이식을 하였고, 다른 1례에서는 성문위 반흔띠제거술을 하였다. 수술후 모든 환자에서 연하곤란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음식물을 삼키는 훈련이 필요하였다. 유동식은 수술후 8일째부터 169일째에 가능했고, 고형식은 수술후 9일째부터 303일째에 가능하였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인두에서 위의 일부 또는 출구까지 심하게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부식성협착에서 좌측대장을 이용한 인두-대장-공장 문합술과 음식물을 삼키는 훈련으로, 정상적인 연하기능을 회복하여 식도 재건술로 유용함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위의 출구까지 상부소화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위의 저류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증례들에서, 인두-대장-공장 문합술을 적용하여 식도-위를 우회한 식도재건술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책임저자: 심영목 (성균관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박충규 (성균관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